

#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박경자\*

- I. 머리말
- II. 15세기 地理志에 기재된 磁器 및 磁器所
- III. 磁器所의 운영주체 및 방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전기에 국가운영에 소용된 자기(磁器)의 종류와 생산방식은 관요(官窯:司饗院 沙器所)의 설치(1466-1469)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관요는 內用 및 國用の 白磁를 전담하여 생산하는 사용원의 사기소(司饗院 沙器所)로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담하였다. 이와는 달리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현물세의 한 종류로 생산한 공납용 자기(분청사기·백자·청자)를 여러 道에 속한 주현(州縣)의 지방관부가 주관하여 중앙정부에 상납하였다. 공납용 자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磁器所(沙器所·砂器所)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들 자기소는 15세기에 국가주도로 편찬된 여러 지리지(地理志)에 기재되었다.

이처럼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국가운영에 소용된 공납용(貢納用) 자기와 그 생산처인 자기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관사의 이름(官司名)·장인의 이름(匠名)·지역의 이름(地名)이 확인된 가마가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소와 일치하는지와 자기의 양식적인 특징을

\* 문화재청

파악하여 가마의 운영시기를 파악한 것<sup>1</sup> 둘째, 지리지에 자기소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명문(銘文)이 출토된 가마를 자기소 이외의 '기타요'로 규정하고<sup>2</sup> 이들 가마에서도 공납용 자기를 제작했음을 파악한 것,<sup>3</sup> 셋째 관요 설치 이전에 존재한 모든 가마를 民窯로 규정한 것 등이다.<sup>4</sup>

이상의 연구에서는 조선 초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에 전국에 분포한 자기소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재된 이유, 즉 조선 초에 지리지를 편찬한 목적에 따른 자기소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자기소의 운영주체 및 공납용 자기의 생산방식을 고찰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범위는 조선이 개국한 1392년부터 官窯의 설치가 완료된 1469년까지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여러 지방군현 중에 국가의 통치체제 정비와 재정운영 방식에 따른 자기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경상도의 자기소를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에 자기소와 함께 기재된 도기소(陶器所)는 가마의 발굴 예와 실물자료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II. 15세기 地理志에 기재된 磁器 및 磁器所

조선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財政)을 백성들이 내는 전세(田稅), 신역(身役), 공부(貢賦)로 구성된 부세제도를 통하여 확보하였다.<sup>5</sup> 따라서 세원(稅源)의 파악과 조세의 균등화를 위한 각종 세제의 정리가 필요하였다.<sup>6</sup> 특히 개국 직후인 太祖 元年(1392)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

1 姜敬淑, 『粉靑沙器研究』(一志社, 1986); 同著, 『世宗實錄』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 - 경기도와 충청도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7), pp. 39-89; 同著,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 - 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202 (韓國美術史學會, 1994), pp. 1-95.

2 金英媛, 『朝鮮時代 窯業體制의 變遷-陶器所·磁器所에서 分院官窯로』, 『美術資料』66(국립중앙박물관, 2001), pp. 21-27; 同著, 『世宗實錄』地理志의 全北 陶器所·磁器所, 『제40회 전국역사학대회 논문집』(1997).

3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 88.

4 田勝昌,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년 12월), p. 58.

5 손병규, 『조선시대 재정과 지방의 재정운영』, 『지방으로부터 보는 조선시대 재정』(한국역사연구회·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년 3월), pp. 3-13; 同著,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역사비평사, 2008).

6 徐仁原, 『朝鮮初期 地理志의 研究-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해안, 2002), pp. 34-35.

監)을 설치하여 공납제(貢納制)를 제정한 이래<sup>7</sup> 戶를 대상으로 부과된 토산(土産)의 현물을 군현 단위로 중앙각사에 납공하는 공물(貢物)의 정비가 시급하였다.<sup>8</sup> 이 과정에서 수취체제의 정비 등 국가운영재정의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지지(地志)의 편찬이 절실하였으며,<sup>9</sup> 이 때 편찬된 것이 『慶尙道地理志』와 新撰 『八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이다.<sup>10</sup> 『世宗實錄』地理志는 본래 세종 6년(1424)에 여러 지역의 지지와 연혁을 편찬하라는 왕명에 의해 작성된 『慶尙道地理志』를 바탕으로 몇 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세종 14년(1432)에 『八道地理志』로 완성되었으며, 세종이 돌아 간 후 1454년에 『世宗實錄』이 편찬될 때 '地理志'라는 이름으로 부록되었다.<sup>11</sup> 이후 예종 1년(1469)에는 현존하지는 않으나 예종의 순에 의해 梁誠之가 편찬한 『續撰八道地理志』의 기본 자료로서 『慶尙道續撰地理志』가 완성되었다. 이들 지리지에는 여러 道에서 진상물(進上物) 또는 공물(貢物)로 왕실과 중앙의 여러 관사에 납공한 磁器(沙器)와 磁器所(沙器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 1. 자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慶尙道地理志』가 작성된 1424년 당시에 磁器는 공물의 한 종류였다. 이는 조선이 국가운영에 사용되는 자기를 공물로 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太祖 元年(1392)에 처음 제정된 이래 太宗 13년(1413)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된 貢納制의 시행과 관련

<sup>7</sup> 『太祖實錄』2卷, 1年 10月 12日 庚申; 朴道植,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p. 34-35.

<sup>8</sup> 『世宗實錄』32卷, 8年 4月 辛卯.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sup>9</sup> 徐仁原, 앞의 책(혜안, 2002), pp. 34-37.

<sup>10</sup> 鄭陞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편찬(I·II)」, 『歷史學報』69·70(역사학회, 1976); 金東洙, 「『世宗實錄』地理志 産物項의 검토」, 『歷史學研究』 제12집(전남대학교, 1993), pp. 385-418; 同著, 「『世宗實錄』地理志의 연구 - 특히 産物·戶口·軍丁·姓氏項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p. 1; 徐仁原, 앞의 책(혜안, 2002), pp. 13-14.

<sup>11</sup> 본 글에서는 1432년에 완성된 『八道地理志』를 기준에 한국도자사학회에서 사용한 명칭을 따라 『世宗實錄』地理志로 사용하였다. 『慶尙道地理志』와 『八道地理志』(『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과정은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연구」(충북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 25-37 참고.

이 있다. 이는 太宗 17년(1417)에 이조, 호조, 예조 소속의 많은 관사들과<sup>12</sup> 世宗 2년(1420)에 예빈시(禮賓寺)에서 자기(沙器)를 해마다 여러 지방(外方)으로부터 공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다.<sup>13</sup> 이를 통하여 조선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세원(稅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지리지(地誌)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자기가 공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공납용 자기에는 공납제의 운용과정에서 관사의 이름(官司名), 장인의 이름(匠名), 지명(地名) 등의 명문(銘文)이 표기되었다. 太宗 17년에는 자기소에서 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처인 관사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고,<sup>15</sup> 世宗 3년(1421)에는 여러 종류의 진상기명(進上器皿)에 제작자인 장인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만든 사람인 장인의 이름과 자기를 상납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방의 이름이 공납용 자기에 나타나게 되었다.<sup>16</sup> 특히 匠名과 地名은 공납용 자기의 생산처인 자기소가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고, 최종 소비처인 궁궐 안팎의 여러 관사가 한성부(漢城府) 내에 집중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물세 납공의 원거리운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sup>17</sup>

1424년에 작성된 『慶尙道地理志』에 자기가 공물로 기재되기 이전에 제작된 공납용 자기의 실례는 <표1>과 같다.

<sup>12</sup> 『太宗實錄』33卷, 17年 4月 20日 丙子.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饗房納施行, 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幸時, 分納於司饗房·司膳署·司饗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 還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下典, 實爲積年巨弊. 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 司饗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膳寺, 恭安·敬承府等各司, 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絕巨弊.” 皆從之.

<sup>13</sup> 『世宗實錄』7卷, 2年 閏1月 29日 戊戌.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鎗器每歲貿易, 沙器木器每歲納貢, 一經宴享, 則過半遺失, 隨即分徵典守者, 宴享相繼, 典守奴婢, 雖傾家破產, 不能盡償.”

<sup>14</sup> 박경자, 『靑沙器 銘文 研究』, 『講座美術史』25호(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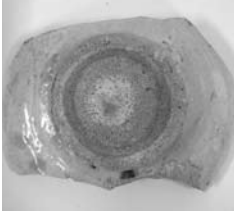


<sup>15</sup> 주)12 참고.

<sup>16</sup> 『世宗實錄』11卷, 3年 4月 16日 戊申.

工曹啓, “凡進上器皿, 不用心堅緻造作, 緣此不久破毀.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 其不用心者, 徵其器皿.” 從之.

<sup>17</sup> 공납용 자기를 비롯한 공물의 운송에 관해서는 박경자, 『15세기 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湖西史學』제47집(호서사학회, 2007) 참고.

표 1 1424년 이전의 제작된 공납용 자기

			
德泉명분청사기 1403년 이전 충남 연기 청라리 수습	恭安府명백자 1400-1420년 강원도 양구 송현리 5호 수습, 명지대박물관 소장	仁寧府명분청사기 1400-1421년 日本 소재	敬承〇명분청사기 1402-1418년 경남 합천 장대리 출토

## 2. 자키소

15세기 초반에 완성된 『慶尙道地理志』(1424)와 『世宗實錄』地理志(1432)에는 공납용 자기와 자키소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사료1〉 『慶尙道地理志』慶州道 慶州府 密陽都護府

土產貢物：石茸·黃粟·全漆·每漆·狸皮·猪毛·雀舌茶·鹿脯  
木器·銀口魚·紙地·芡仁·篠簞·磁器·陶器·鐵

〈사료2〉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密陽都護府

土貢：蜂蜜·黃蠟·漆·芝草·雀舌茶·石茸·鹿脯·銀口魚·篠簞  
紙地·狐皮·狸皮·水獺皮

土產：磬石(產府東 萬魚寺洞)·石鐵(產府東 松谷山).

磁器所二一在烏山里, 一在栗洞. 陶器所一, 在丹場里, 皆在府東, 下品.

위의 〈사료1〉과 〈사료2〉의 자기 및 자키소에 관한 기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慶尙道地理志』에는 土產貢物항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공물의 이름만을 나열하여 당시에 자키가 공물의 한 종류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공납용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키소의 수, 위치, 품등(品等)을 표기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慶尙道地理志』의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에 자키소가 있

는 지역 및 수는 <표2>와 같고, 자기소의 각 道別 분포상황은 <표3>과 같다.

이러한 차이는 『慶尙道地理志』를 기초자료로 하여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가 국가운영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물 즉 세원(稅源)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라는 편찬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기록임을 의미한다.<sup>18</sup> 무엇보다도 두 지리지의 기록은 1424-1432년 당시에 자기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물이며, 이를 생산한 자기소가 존재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 점은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가마의 운영시기 및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조선 초 자기소의 성립 시기가 이들 가마의 상한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점과 두 지리지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의 가마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경우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가마가 확인된 경우 이를 자기소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기소의 성격구명에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sup>19</sup> 이 점에 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다뤘다.

조선 초기에 작성된 지리지에 자기가 공물로 기재되기 이전부터 공납용 자기가 존재한 것과 같이 자기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5세기에 磁器所(沙器所)를 처음 기재한 것은 <사료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424-1432년 사이에 작성된 『世宗實錄』地理志이다. 이러한 지리지의 기록이 자기소의 존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太宗 14년(1414)과 世宗 元年(1418)의 강원도 횡천·횡성<sup>20</sup> 자기소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미 밝힌 바가 있다.<sup>21</sup>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자기소들은 고려 말에 전라도 강진의 자기소가 해체되고 1370년대부터 司膳(署)·德

<sup>18</sup> 金東洙, 앞의 글(전남대학교, 1993), p. 409.

<sup>19</sup> 金英媛은 주)3의 책 p. 88에서 자기소와 도기소로 기재되지 않은 가마에서도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 가마를 '기타요로 명명하고 당시의 요업상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밝힌 바 있다.

<sup>20</sup> 橫川과 橫城은 동일한 지역으로 태종 13년에 횡천을 횡성으로 고쳤다.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原州牧 橫城縣.

橫城, 縣監一人. 本高句麗橫川,〔一云於斯買〕新羅改漢川, 爲朔州領縣. 高麗復稱橫川, 仍爲春州任內, 後屬原州. 恭讓王元年己巳,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縣監, 十四年甲午, 以橫川洪川同韻, 故稱橫城.

<sup>21</sup> 『太宗實錄』28卷, 14年 閏9月 7日 丁未.

“次橫川沙器所, (중략) 江原道觀察使李安愚獻馬一匹鷹三連, 判原州牧使李承幹獻田犬”.

『世宗實錄』6卷, 元年 11月 5日 乙巳.

“兩上沿路觀鷹, 晝停于原州北境. 江原道監司成揆, 經歷禹敬夫, 兵馬節制使玄貴命, 經歷李明保等來見, 揆進酒果. 暮雷電以雨. 駕次橫城沙器所, 揆又進酒果暮雷電以雨, 駕次橫城沙器所, 揆又進酒果.”; 박경자, 주)14의 글, pp. 285-288.

表 2 『慶尙道地理志』磁器·沙器 및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慶尙道地理志』		土産眞物：磁器·沙器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數
慶州道	慶州府	磁器	·	慶州府	慶州府	2
	密陽都護府	磁器	·		密陽都護府	2
	梁山郡	磁器	·		梁山郡	1
	蔚山郡	磁器	·		蔚山郡	1
	淸道郡	·	·		淸道郡	·
	興海郡	·	沙器		興海郡	1
	慶山縣	磁器	·		慶山縣	1
	昌寧縣	磁器	·		昌寧縣	1
	彥陽縣	·	沙器		彥陽縣	1
	靈山縣	磁器	·		靈山縣	1
	解顔縣	·	·		解顔縣	·
大邱郡	·	·	大邱郡	·		
安東道	順興都護府	磁器	·	安東大都護府	順興都護府	1
	醴泉郡	·	·		醴泉郡	·
	屬梨旨縣	磁器	·		梨旨縣(→屬新寧縣)	
	義城縣	·	沙器		義城縣	1
	盈德縣	·	·		盈德縣	·
	仁同縣	磁器	·		仁同縣	1
	義興縣	磁器	·		義興縣	1
	新寧縣	·	·		新寧縣	·
	榮川郡	·	·		榮川郡	·
永川郡	磁器	·	永川郡	1		
尙州道	尙州牧官	·	·	尙州牧	尙州牧	·
	中牟縣	磁器	·		中牟縣	2
	丹密縣	·	·		丹密縣	·
	功城縣	磁器	·		功城縣	1
	星州牧官	磁器	·		星州牧	1
	善山都護府	磁器	·		善山都護府	2
	陝川郡	磁器	·		陝川郡	1
	草溪郡	·	·		草溪郡	·
	金山郡	磁器	·		金山郡	1
	高靈縣	磁器	·		高靈縣	1
	開寧縣	·	·		開寧縣	·
	咸昌縣	·	·		咸昌縣	·
	龍宮縣	·	·		龍宮縣	·
軍威縣	磁器	·	軍威縣	1		
晋州道	晋州牧官	磁器	·	晋州牧	晋州牧	3
	金海都護府	磁器	·		金海都護府	1
	昌原都護府	磁器	·		昌寧都護府	1
	咸安郡	磁器	·		咸安郡	1
	昆南郡	磁器	·		昆南郡	2
	居昌縣	·	·		居昌縣	·
					珍城縣	1
			三嘉縣	1		
			宜寧縣	1		

표 3 『世宗實錄』地理志 各道の磁器所

道	자기소				
	各道の 자기소數	上品	中品	下品	표기 없음
경기도	14	1	0	12	1
충청도	23	0	12	11	0
경상도	37	3	8	26	0
전라도	31	0	15	13	3
황해도	12	0	6	6	0
강원도	4	0	2	2	0
평안도	13	0	1	12	0
함길도	5	0	0	2	3
계	139	4	44	84	7

泉庫·宝源庫명 등이 표기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전국의 가마들로 15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지리지에 기재된 것이다.<sup>22</sup> 이러한 고려 말-조선 초 공납용 자기의 제작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로 경남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가마터가 있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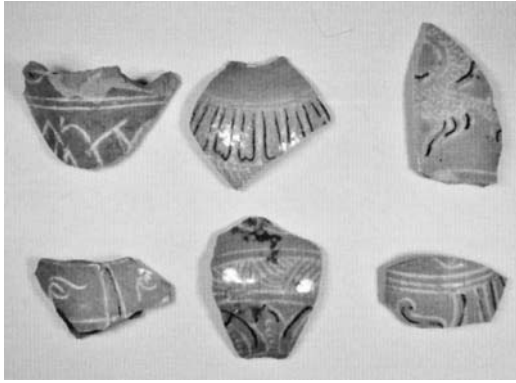
합천 장대리 가마터에서는 발굴 결과, 고려 말 상감청자의 양식적인 특징을 보이는 흑백상 감기법의 매병편, 1372-1420년 사이에 제작된 司膳명 분청사기, 1402-1418년에 존재한 敬承府명 분청사기, 1421년의 조치로 지명이 표기된 三加長興庫명·三加仁壽府명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도1-7) 장대리 가마터는 현재 합천군 가회면에 속해있어 분청사기에 표기된 ‘三加(縣)’과 동일한 지명인 삼가면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三加縣은 太宗 14년(1414)에 三岐縣과 嘉壽縣이 합쳐진 것이므로 현재의 장대리 가마터는 15세기 초반에 삼가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이와 같이 고려 말-조선 초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재한 장대리 가마터는 『世宗實錄』地理志(1424-1432)를 편찬할 때 자기소로 등재된 것으로 판단된다.<sup>25</sup>

<sup>22</sup> 고려 말-조선 초에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요업체제에 관해서는 박경자, 「高麗末·朝鮮初 貢納用 磁器의 製作背景」, 『高麗陶瓷新論』(학연문화사, 2009), pp. 141-156; 同著,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研究』238·239(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109-147 참고.

<sup>23</sup> (財)東西文物研究院, 「합천 장대리 도요지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2010, 7); 하태중, 「합천 장대리 도요지 유적」,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경기도자박물관, 2010), pp. 6-23.

<sup>24</sup>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三嘉縣.  
三嘉縣, 三岐縣, 本三支縣.(一云麻杖.) 景德王改名三岐, 爲江陽郡領縣. 顯宗戊午, 屬陝州任內, 恭愍王癸丑, 始置監務. 本朝太祖甲戌, 以王師自超之鄉, 陞爲知郡事. 太宗辛巳, 降爲縣, 甲午, 以陝川任內嘉樹縣屬之, 改號三嘉, 置監務, 別號岐山.

<sup>25</sup>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三嘉縣.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 中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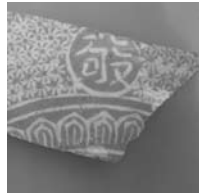
도1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흑백상감분청사기



도2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司膳분청사기



도3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敬丞府명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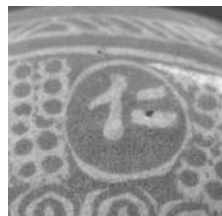
도 3-1 도3의 명문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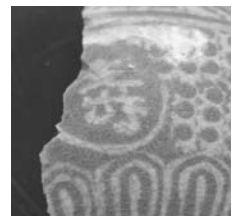
도 3-2 도3의 명문丞



도4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仁壽명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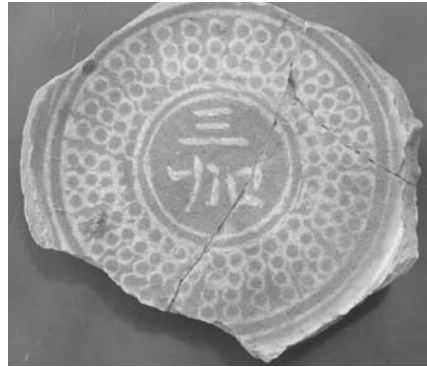
도 4-1 도4의 명문仁



도 4-2 도4의 명문壽



도 5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三加명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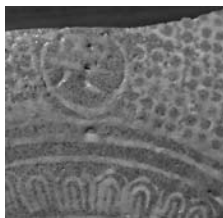
도 6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三加명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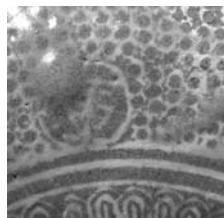
도 7 경남 합천 장대리 가마터 출토 長興庫명분청사기



도 7-1 도 7의 명문長



도 7-2 도 7의 명문興



도 7-2 도 7의 명문庫

지금까지 15세기 초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에 공물로 기재된 자기와 이를 생산한 자기소는, 고려 말에 국가운영에 사용되는 자기를 전국의 여러 가마에서 생산하던 상황이 조선 초로 이어져 국가주도의 지리지 편찬 작업이 이루어 질 때 기재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가마의 운영시기에 따른 공납용 자기의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문이 표기된 자기를 제작한 가마가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라도 지리지 조사기간 이전부터 운영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Ⅲ. 磁器所의 운영주체 및 방식

#### 1. 자기소의 운영주체

조선 초에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고 모든 군현에 수령(守令)을 파견하여 세종 때에는 수령중심의 군현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sup>26</sup> 이를 통해 갖추어진 지방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sup>27</sup> 태종대에는 외방(外方)의 지방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팔도에 관찰사를 감사(監司)로 파견하였다. 관찰사는 왕권의 대행자로서 지방통치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장관(地方行政長官)으로 그 주된 임무는 道内の 세곡(稅穀) 및 공부(貢賦)를 수납하는 것이었다.<sup>28</sup>

조선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전세(田稅), 인정(人丁)에 대한 신역(身役), 호(戶)를 단위로 한 공부(貢賦)로 구분된 부세제도를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공부는 공납(貢納)과 요역(徭役)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룬 공납용 자기는 한 사람의 개인인 사기장인(沙器匠人)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의 장인으로 구성된 사기장인호(沙器匠人戶)에 부과된 공물이다. 이는 '전지(田地)가 있으면 조세(租稅)가 있고, 몸이 있으면 역(役)이 있으며, 호(戶)가 있으면 공물(貢物)이 있으니, 이미 옛날의 조(租)·용(庸)·조(調)의 법에 합하는데...'라고 한 『世宗實錄』8년(1426) 4월 28일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sup>29</sup>

26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일지사, 1990), pp. 18-21.

27 『太宗實錄』29卷, 14年 7月 乙亥; 李存熙, 앞의 책(일지사, 1990), p. 66, pp. 134-135.

28 『太宗實錄』3卷, 2年 2月 辛未; 『世宗實錄』22卷, 5年 12月 甲寅.

29 『世宗實錄』32卷, 8年 4月 28日 辛卯.

이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재원이므로 세원의 확보는 한 道를 관장하는 관찰사에게 부과된 가장 큰 임무였다. 따라서 관찰사의 임무를 道內의 주현(州縣)별로 분담하는 수령에 대해, 태종은 그 임무를 규정한 ‘守令七事’에서 수령을 왕권의 대행자로서 조세(租稅)와 역역(役力)의 징수자로 명명하였다.<sup>30</sup> 이를 바탕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세곡과 공물 위주의 현물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재원의 징수업무를 지방관에게 위임하였다.<sup>31</sup>

따라서 각 주현 내에서 공물의 분정과 수취 및 납공에 관한 조세수취의 전 과정을 관장한 地方官(府)은<sup>32</sup> 할당받은 공물의 총량을 관할지역의 민호에 부담시켜 수합하여 공납의 책임을 수행하였다.<sup>33</sup> 여러 가지 공물 중에서 일부 수공업품은 중앙정부가 工曹를 비롯하여 중앙각사 소속의 경공장(京工匠)들에게 제작하도록 하여 충당하였으나, 대부분은 지방군현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다.<sup>34</sup>

앞서 살펴 본 지리지에 공물로 기재된 자기는 이러한 수공업품의 공물에 해당되며,<sup>35</sup> 磁器所는 民戶인 장인호(匠人戶)가 지방관부로부터 할당받은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장소로 가마가 위치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자기를 만드는 사기장(沙器匠)들이 戶를 이루어 존재했음은 자기소와 마찬가지로 지리지에 기재되어 각 道의 지방관부로부터 할당받은 공납용 철(眞鐵)을 생산한 철장(鐵場·鐵所)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사료3>과 <사료4>는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鐵場과 당시에 존재한 공철을 생산한 대장간의 규모, 즉 장인집단(鐵匠戶)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申商陳言, “今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已合古者租庸調之法, 又有戶米未便, 宜蠲減.”

<sup>30</sup> 李存熙, 앞의 책(일지사, 1990), pp. 134-136.

<sup>31</sup> 손병규, 『조선시대 재정과 지방의 재정운영』, 『지방으로부터 보는 조선시대 재정』(한국역사연구회·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년 3월), pp. 3-13 ; 同著, 『조선 후기 국가재원의 지역적 분배-부역실총(賦役實總)의 상하납(上下納) 세물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sup>32</sup>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수령제의 커다란 차이 중의 하나는 수령의 권한과 업무수행방식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 郡縣의 내부 관행이나 鄉吏에 의해 운영되던 여러 업무를 수령이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수령제가 개혁되었다(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해안, 2002), p. 167).

<sup>33</sup> 『世宗實錄』17卷, 4年 9月 乙亥 ; 『世宗實錄』58卷, 14年 12月 癸卯 ; 『世宗實錄』56卷, 14年 6月 壬辰.

<sup>34</sup> 太宗-世宗연간에 京中各司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19卷, 10年 6月 11日 丙午 ; 『太宗實錄』32卷, 16年 10月 12日 庚午 ; 『世宗實錄』28卷, 7年 4月 28日 丁卯 ; 『世宗實錄』31卷, 8年 3月 4日 戊戌 ; 『世宗實錄』64卷, 16年 6月 11日 丙辰 ; 『世宗實錄』84卷, 21年 1月 22日 辛丑.

<sup>35</sup> 中央各司의 貢案에는 해당군현에 分定된 공물의 수량, 상납해야 할 정부관아가 명기되어 있고,各司의 공안에는 지방군현에서 징수해야 할 공물의 물명과 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各道의 감영에는 관할 각관의 공안을 통합한 各道공안이, 戶曹에는 各道·各司·各官의 공안을 통합 보관한 戶曹貢案이 있다. 공물의 수취는 중앙의 호조 및 각 사, 外方의 各道各官에 비치된 貢案에 의거하여 대개各司→(各道監司)→各官 守令→各戶의 체계로 부과·징수되었다(朴道植, 앞의 글(1995), p. 112).

〈사료3〉 ①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忠州牧

鐵場이 1이니, 주의 남쪽 말흘금(末訖金)에 있고, 중품이다. 磁器所가 1이니, 주의 서쪽 보련동(寶蓮洞)에 있고,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주의 북쪽 월호현(月乎峴)에 있다. 모두 하품이다.<sup>36</sup>

〈사료3〉 ②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務安縣

鐵場이 2이니, 하나는 현의 동남쪽 시구동(柴口洞)에 있고, 하나는 현의 남쪽 탄동(炭洞)에 있다. 모두 상품이다. 연철(鍊鐵) 1천 5백 86근을 군기감(軍器監)에 바친다. 자기 소가 1이니, 현의 서쪽 주동(周洞)에 있고, 도기소가 1이니, 현의 서쪽 청천동(淸川洞)에 있다. 모두 중품이다.<sup>37</sup>

〈사료3〉 ③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陝川郡

鐵場이 있고, 歲貢은 正鐵 9천 5백 근이다. 磁器所가 1이니, 군(郡) 서쪽 수개곡리(樹介谷里)에 있고, 陶器가 1이니, 군 서쪽 우곡리(于谷里)에 있다. 모두 하품이다.<sup>38</sup>

〈사료4〉 『世宗實錄』29卷, 7年 9月 2日 戊戌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각관의 무쇠대장간을 대·중·소로 분별하기가 어렵사오니, 직공 20명 이상 거느린 곳을 큰 대장간, 15명 이상을 중 대장간, 14명 이하를 작은 대장간으로 정하기를 청하옵니다. 세를 거두는 데에 있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작은 대장간은 춘등(春等)에 돈(錢) 6백 60문과 추등(秋等)에 쌀 4섬 6말을 받고, 평안도는 반수를 감하여 1년 동안에 쌀 4섬 6말을, 경기도와 충청·황해·강원도는 무쇠로 80근을 받는 데... (중략) 정한 수량으로 하여, 매년 거두어 상납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39</sup>

<sup>36</sup>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忠州牧.

鐵場一在州南末訖金, 中品. 磁器所一在州西寶蓮洞, 陶器所一在州北月乎峴. 皆下品.

<sup>37</sup>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務安縣.

鐵場二, 一在縣東南柴口洞, 一在縣南炭洞. 品皆上. 鍊鐵一千五百八十六斤, 納于軍器監. 磁器所一, 在縣西周洞. 陶器所一, 在縣西淸川洞. 品皆中.

<sup>38</sup>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陝川郡.

產冶爐縣南心妙里, 有鐵場, 歲貢正鐵九千五百斤. 磁器所一, 在郡西樹介谷里. 陶器所一, 在郡西于谷里. 皆下品.

<sup>39</sup> 『世宗實錄』29卷, 7年 9月 2日 戊戌.

戶曹啓, “各道各官水鐵匠大中小爐冶, 分別爲難, 請以率居二十名以上爲大爐冶, 十五名以上爲中爐冶, 十四名以下爲小爐冶. 其收稅則慶尙·全羅道小爐冶春等錢六百六十文, 秋等米四石六斗, 平安道減半, 一年米四石六斗, 京畿·忠清·黃海·江原道稅鐵八十斤. (중략) 以爲定額, 每年收稅上納.” 從之.

위의 <사료3>①·②·③은『世宗實錄』地理志에 자기소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철장의 예다. 이들 기록 중에 특히 <사료3>②는 전라도 무안현에서 해마다 군기감에 연철 1천 5백 86근을 납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공물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상납처(上納處)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世宗實錄』地理志의 작성기간에 해당되는 세종 7년(1425)의 기록인 <사료4>는 지방관부(各道各官)에서 貢鐵(貢物)의 양을 분정할 때에 장인호(匠人戶)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대호·중호·소호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호(戶)를 단위로 한 貢鐵의 분정 기준은 공납용 자기의 제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철과 자기는 비록 그 종류가 다를지라도 <사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慶尙道地理志』에 각각 貢物의 종류로 기재되었고, <사료3>의 ①·②·③과 같이『世宗實錄』地理志에 같은 방식으로 나란히 기재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료3>과 <사료4>를 통해서 살펴 본 것처럼 조선 초에는 철과 같은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금속제품 또는 자기를 제작하는 일과 같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여러 분야의 장인들을 경중각사(京中各司)에서는 경공장(京工匠)으로, 지방방관부에서는 외공장(外工匠)으로 장적(匠籍)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세종연간의『朝鮮王朝實錄』에 잘 나타나 있다.<sup>40</sup> 따라서 자기소가 소재한 주현의 지방관부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기장인의 명부인 장적(匠籍)이 있었으며, 이들 자기장들은 10-30명 내외로 구성된 장인호를 이루어 특정한 지역에서 자기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장인호(匠人戶)의 규모는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1425년의 기록인 <사료4>와 16세기 초인『中宗實錄』12년(1517) 12월 17일에 工曹의 장적에 등재된 각종 장인호(工曹案付各色匠人)의 규모가 대호는 30여 명, 중호는 20여 명, 소호는 15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자기장인호의 규모를 10-30명으로 설정하였다.<sup>41</sup>

<sup>40</sup> 『太祖實錄』3卷, 2年 4月 1日 乙亥; 『定宗實錄』1卷, 1年 1月 19日 庚寅; 『太宗實錄』12卷, 6年 7月 30日 丁巳; 『太宗實錄』14卷, 7年 12月 30日 己酉; 『太宗實錄』19卷, 10年 6月 11日 丙午; 『太宗實錄』21卷, 11年 1月 12日 癸酉; 『太宗實錄』23卷, 12年 3月 24日 戊申; 『太宗實錄』24卷, 12年 7月 7日 庚寅; 『太宗實錄』27卷, 14年 6月 9日 庚戌; 『太宗實錄』28卷, 14年 12月 22日 辛卯; 『太宗實錄』29卷, 15年 4月 10日 丁丑; 『世宗實錄』4卷, 1年 7月 29日 壬申; 『世宗實錄』10卷, 2年 10月 1日 丙申; 『世宗實錄』25卷, 6年 8月 18日 庚申; 『世宗實錄』28卷, 7年 4月 28日 丁卯; 『世宗實錄』31卷, 8年 3月 4日 戊戌; 『世宗實錄』34卷, 8年 12月 6日 乙丑; 『世宗實錄』43卷, 11年 2月 21日 丁酉; 『世宗實錄』54卷, 13年 11月 18日 己卯; 『世宗實錄』61卷, 15年 9月 18日 丁酉; 『世宗實錄』68卷, 17年 5月 27日 戊戌; 『世宗實錄』81卷, 20年 6月 14日 丙寅; 『世宗實錄』84卷, 21年 1月 21日 辛丑; 『世宗實錄』115卷, 29年 3月 23日 乙酉.

<sup>41</sup> 『中宗實錄』31卷, 12年 12月 17日 戊午.  
工曹案付各色匠人, 大戶則三十餘名, 中戶則二十餘名, 小戶則十五餘名, 多率壯實人富居者頗多, 故凡軍士及公賤, 逃托於其戶.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1424-1432년 사이에 작성된『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磁器所의 운영주체를 지리지의 편찬목적에 입각하여 밝히고자 한다.

조선 초의 지리지는 국가운영재정의 근간이 되는 稅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편찬하였다. 자기소는 여러 가지 貢物중의 한 종류인 磁器를 생산하는 장소의 의미로, 중앙정부에게는 國用磁器를 생산할 수 있는 稅源에 해당된다. 즉 지리지에는 ‘磁器所’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沙器匠人이 戶를 이루어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마(窯)와 작업장이 있는 장소인 요장(窯場)이다. 장인들은 貢納制의 틀 안에서 부여된 공물의 제작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요역(徭役) 일수 내에서 공납용(貢納用) 자기를 제작하고 평상시에는 민수용(民需用) 자기를 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sup>42</sup> 이때의 자기소는 장인호에 속한 民窯이다.

그러나 지리지에 기재된 磁器所가 일반백성이 사용하는 민수용 자기를 생산하는 요장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국가재원의 한 종류인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장소를 파악한 기록’이고, 자기의 형태 및 문양 등의 양식<sup>43</sup>·생산량·제작기간·수취 및 납공에 이르는 공납의 전 과정을 국가가 정한 제도에 근거하여 地方官府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때의 ‘자기소’는 민요위에 한 시적으로 형성된 ‘貢納窯’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자기소의 운영주체는 조세징수의 실질적인 행정책임자인 지방관이 주관하여 중앙정부에 자기를 상납하는 지방관부(地方官府)다.<sup>44</sup>

그러나 장인호에 속한 민요에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만 지방관부의 주관으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貢納窯와 달리 지방관부에 속한 요장(窯場)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여 역시 공납요인 가마를 ‘地方官窯’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지방관부가 장인을 요역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법정기간에 따라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이고, 자기제

42 세종연간(1418-1450)에 매년 10월 시작하는 공물제작에 동원된 백성들의 법정부역일수는 연간 20일을 기준으로 풍년일 때는 30일, 흉년일 때는 10일이었다.

『世宗實錄』56卷, 14年 4月 17日 乙巳.

曾降便民條畫內, 十月始役, 限二十日, 豐年加十日, 下年減十日, 春節毋得役民. 然因春秋兩等貢(鈇)(鐵)炒鍊, 方春農務最繁之時, 役於鐵場, 或二十日或三十日, 裹糧往來, 失時廢事.

43 중앙정부에서 정한 동일한 견양(見樣)에 의해 제작된 공납용 자기의 양식에 대해서는 朴敬子,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論壇』27(韓國美術研究所, 2008), pp. 95-121 참고.

44 필자는 공납용 자기에 표기된 명문(銘文)의 분석을 통해 자기소의 운영주체가 지방관부임을 밝힌 바 있다. 拙稿, 「粉靑沙器 銘文 研究」, 『講座美術史』25(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pp. 261-292.

작에 관한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직제 및 인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가마운영비용이 별도의 재정(財政)으로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관부가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른 자기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 2. 자기소의 운영방식

자기는 일반 민호에 분정할 수 없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수공업품이기 때문에 자기소가 소재한 주현의 지방관부는 관할지역 내의 장인을 匠籍에 기재하고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기록에는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료5〉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관방(關防)의 수어(守禦)는 병마도절제사영(兵馬都節制使營)이 강진현(康津縣)에 있고, 정군(正軍)이 4백 98명, 수성군(守城軍)이 51명, 조역군(助役軍)이 1백 63명, 장인(匠人)이 1백 41명이다.<sup>45</sup>

〈사료6〉 『世宗實錄』56卷, 14年 4月 17日 乙巳

경상도 감사가 민간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는 조항을 아뢰기를, (중략) 전에 내리신 편민조획(便民條畫) 속에, '10월에 부역을 처음 시작하고 부역은 20일을 한계로 정하여 풍년에는 10일을 더 시킬 수 있고 흉년에는 10일을 감하며 봄철에는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봄·가을 두 번의 貢鐵을 불리는 일로 인하여 바로 봄철의 농사가 가장 긴급할 때인데, 제철장(製鐵場)의 부역으로 혹은 20일, 혹은 30일씩 식량을 써가지고 왕래하느라고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게 되니, 진실로 좋지 못합니다.<sup>46</sup>

〈사료5〉는 世宗연간에 전라도 병마절제사영 소속의 군인에 관한 소상한 정보와 匠人 백 사

<sup>45</sup>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關防, 守禦兵馬都節制使營, 在康津縣, 正軍四百九十八名, 守城軍五十一, 助役軍一百六十三, 匠人一百四十一名.

<sup>46</sup> 『世宗實錄』56卷, 14年 4月 17日 乙巳.

慶尙道 監司啓民間弊廢條件, “(중략) 曾降便民條畫內, 十月始役, 限二十日, 下年加十日, 下年減十日, 春節毋得役民, 然因春秋兩等貢(鉄)(鐵)炒鍊, 方春農務最緊之時, 役於鐵場, 或二十日或三十日, 糧糧往來, 失時廢事, 誠爲未便”.

십일 명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장인들은 병마절제사영에 속하여 배를 건조하거나 화살이나 무기류 등 여러 종류의 수공업품을 제작하는 장인들일 것이다. 이들 중에 일부는 영(營)에 전속되거나 또는 법정기간 동안 해당 官이 요구하는 작업에 역(役)으로써 동원되었다.<sup>47</sup> 또 <사료6> 世宗 14년(1432)의 기록은 당시에 법정 부역(賦役)일수가 20일을 기준으로 풍년에는 10일을 더하고 흉년에는 10일을 감하여 최대 30일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조선 전기 工匠의 입역(入役) 방식으로, 장인들은 자신이 속한 官의 주관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수공업품을 생산했음을 보여 준다. 정부에서는 장인들의 입역기간 이외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하는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세(工匠稅)를 징수하였다.<sup>48</sup>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兵馬都節制使營에 속한 장인 141명은 법정 부역일수 내에서 각종 수공업품의 제작에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세종연간에 장인들이 평상시에는 농업을 비롯한 생업에 종사하다가 연례로 공물을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는 官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徭役으로 입역(入役)하여 공물을 제작한 경우이다.

단, 장인들의 입역일수는 공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소에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하는 것은 <사료6>의 철장(鐵場)에서 공철(貢鐵)을 생산하는 것과 전체 작업 공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수공업분야에 종사한 장인들의 실제 입역일수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 종류의 공물생산에 동원된 장인의 입역일수에 법적인 근거와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 자기장인의 정확한 입역일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기록과 지금까지 가마터 발굴에서 확인된 가마의 數(基)와 장인의 이름이 표기된 자기를 근거로 자기소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방식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장명(匠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문이 출토된 가마터와 이들 가마가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기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표4>와 같고, 출토된 장인명의 실례는 <표5>와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의 예처럼 한 곳의 자기소에 여러 기(基)의 가마가 있고, 출토된 장인의 이름으로 볼 때 많은 수의 장인이 동시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방관부가 관할하는 요장(窯場)에서 공납자기의 제작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충효동의 퇴적층 및 가

47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33(한국역사연구회, 1999), pp. 19-21.

48 『太宗實錄』28卷, 14年 12月 22日 辛卯; 『太宗實錄』29卷, 15年 4月 2日 己巳; 『世宗實錄』29卷, 7年 8月 20日 丙戌.

마의 발굴에서 확인된 장인은 모두 40-50명에 이른다. 이들 장인의 이름은 1450-1470년대에 운영된 층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sup>49</sup>

충효동 가마와 비교할 때 한 요장 안에 있는 가마의 수에 차이가 있지만 경북 고령 사부리·기산리 일대의 가마들은 시기를 달리하여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가마 즉 자기소의 위치가 순차적으로 이동한 예로 볼 수 있다. 즉 ‘司膳’명이 출토된 사적 제71호 사부리 가마는 142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운영되었고, 2010년에 발굴된 사부리 가마는 장인명으로 추정되는 ‘世·仁·河’ 등의 명문이 출토된 점, 갑발에 넣어 번조(匣燻)한 백자와 상감백자의 양식적인 특징 그리고 1442-1448년에 고령현감을 지낸 金淑滋가 縣의 工人(沙器匠)을 가르쳐 품질이 좋은 백자를 제작하여 중앙에 납공하였다는 기록<sup>50</sup> 등과 관련하여 1440-1470년대에 운영된 자기소로 판단된다.<sup>51</sup> 이 중에 『世宗實錄』地理志의 작성기간(1424-1432) 이후에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가마 즉 자기소의 위치가 이동한 경우로 판단되는 사부리 가마(2010년 발굴)와 같은 예들은 ‘지리지에 자기소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소는 아니지만 관청용의 공납자기를 소량 번조한 기타요’로 해석되기도 하였다.<sup>52</sup>

이상의 광주 충효동과 고령 사부리 가마(2010년 발굴)에서 확인된 1440-1470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납용 자기의 생산방식은 지방관부가 특정지역의 가마에 해당지역의 장인들을 입역시켜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이때의 자기소는 지방관부에 속한 공납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북 완주 화심리가마나 울산광역시 고지평 가마의 예처럼 장인 한 사람 또는 서너 사람의 이름만 확인된 경우는 지방관부가 관할지역의 장인호에게 공납자기의 양을 할당해주고 완제품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자기소로 판단된다. 이때의 자기소는 장인호에 속한 민요에서 한시적으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경우로 역시 공납의 의무를 수행했으므로 공납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자기소의 운영방식, 즉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두 가지 방식은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자기소의 數가 지역에 따라 1-4개소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해석

<sup>49</sup>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142-153.

<sup>50</sup> 『佔畢齋集』彝尊錄, 先公事業 第4

“高靈歲貢白砂器 工人用功 甚鹵莽 故器多若礪 官被詰責 先公至 … 遂教其下九篩之法 精緻鮮潔 居廣州南原之右 先是 每進獻 二邑之工受賞 縣工多得罪 今縣工得賞 以二邑之工反受譴 至今賴之.”

<sup>51</sup> 홍대우, 「慶北 高靈 沙甕里·箕山里 가마터의 現況과 成格」,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경기도자박물관, 2010), pp. 26-46; 박경자,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美術史學』(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pp. 29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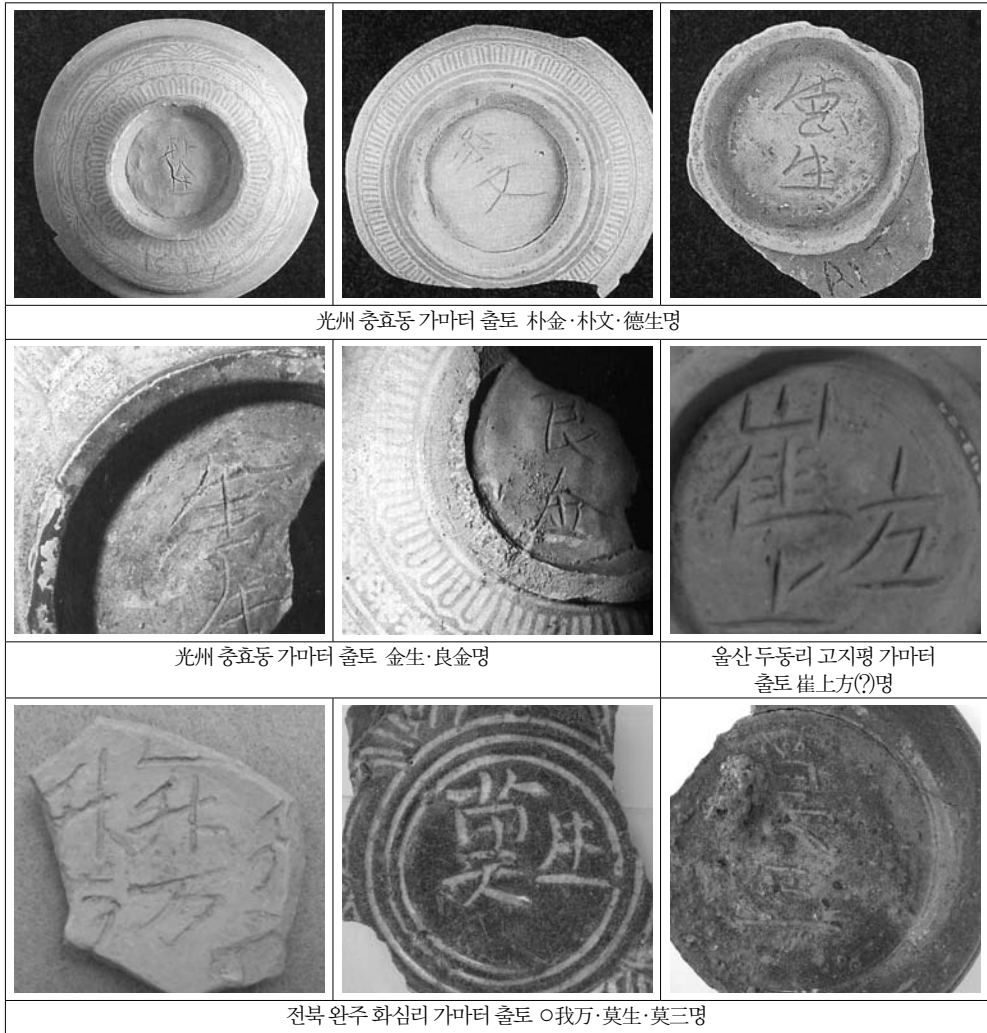
<sup>52</sup> 金英媛, 주)3의 책(2001), p. 88.

표 4 명문이 출토된 가마터와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기록

가마터	가마 數(基)	명문 출토 현황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
		官司名	地名+ 官司名	匠名	
충남 공주 학봉리	4	○	×	×	公州牧 磁器所二 州東鶴洞 中品
충남 연기 송정리	1	○	×	×	全義縣 磁器所二 一縣南松峴里 中品
충북 영동 사부리	2	○	○	×	金山郡 磁器所一 黃金所普賢里 中品
충남 보령 용수리2호	2	○	×	×	기록 없음
대전 구완동	2	○	×	×	기록 없음
전남 곡성 구성리	1	○	×	×	谷城縣 磁器所一 縣南牛谷 下品
光州 충효동	4(7)	○	○	朴德只, 金禾中, 朴金一, 得夫, 工夫, 朴夫, 德生, 閑生, 永守, 良金, 德金, 往金, 咸金, 朴文, 朴金, 朴主, 李井, 李万, 崔万, 李金, 万朴, 金金, 金水, 金朱, 閑山, 瞳山, 金山, 未山, 中山, 貴山, 孝山, 崔上, 龍, 金, 同, 德, 得, 閑, 井, 春, 李, 徐, 徐(?)万, 尹, 朴, 崔, 鄭, 知, 生, 金, 仁, 水, 无, 馬, 自, 夫, 山, 秀, 田, 孝, 天, 真, 田 등	茂珍郡 磁器所一 在郡東利帖
전북 완주 화심리	1	○	×	莫生, 莫三, 委釘, 我万, 繼生, 中, 金巾之(全州之 또는 全巾之) 등	기록 없음
전북 고창 용산리	4	○	×	×	기록 없음
전북 고창 용계리	3(?)	○	×	×	기록 없음
울산 고지평	1	×	○	崔上左(万 또는 方?)	慶州府 磁器所二 一府西大谷村 下品
경남 합천 장대리	1	○	○	×	三嘉縣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 中品
경북 칠곡 학하리	1	○	?	×	仁同縣 磁器所一 在縣東莫谷里 下品
경북 고령 사부리 사적 제7호 퇴적층 발굴조사	?	○	?	?	高靈縣 磁器所一 在峴東叟峴里 上品
경북 고령 사부리 (2010년 발굴)	1		(○)	河, 仁, 世	
경북 고령 기산리	1	×	×	×	

부산기장 상장안	1		○	×	*『世宗實錄』地理志 蔚山郡 磁器所一 在郡北齊餘沓里 下品 *『慶尙道續撰地理志』 磁器所 在郡南長安里峴 品下
-------------	---	--	---	---	--

표 5 가마터에서 출토된 匠人名





경북 고령 사부리 출토 世·河·仁명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표2>, <표3>참고) 즉 지방관부가 특정한 한 장소의 자기소에 장인들을 입역시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경우에는 여러 장인호에서 제작한 완제품의 자기를 취합한 경우에 비해 파악된 가마의 수가 적었을 것이다. 또 후자의 경우에도 장인(匠人) 한 사람이 한 기(基)의 가마를 운영한 것은 아니며, 하나의 장인호(匠人戶)가 운영한 가마의 수가 반드시 한 기(基)에 국한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전체 가마, 즉 자기소의 수는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소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 광주(廣州)에 사용원의 자기소인 관요(官窯)가 설치되기 이전에 전국의 여러 주현에서 지방관부별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방식 즉 자기소를 운영한 방식이 동일하지 않은 점과, 자기소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가마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가마 중에 공납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마의 수가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된 139개소의 자기소에 비해 매우 적고, 가마가 위치한 유적의 발굴범위도 일부분에 국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15世紀 磁器所의 운영방식은 추후 확인될 발굴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 IV. 맺음말

조선은 국가운영재정의 상당부분을 현물납(現物納) 중심의 징수체제인 貢納制를 통해 확보하였기 때문에 건국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稅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地理志를 편찬하였다. 이 때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에는 貢物의 한 종류로 磁器가, 이를 생산하는 장소인 磁器所가 기재되었다. 지리지의 편찬 목적이 국가운영재정의 안정

적인 확보이므로 이 때 기재된 '磁器所'는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貢納窯이다.

중앙의 재무기관은 부세의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징수권'을 지방관청에 위임하였으며, 地方官府는 이를 바탕으로 貢納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貢物은 지방관부가 戶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므로 공물을 생산하는 匠人 및 匠人戶를 장적(匠籍)에 등재하여 관리하였다. 따라서 공납용 자기의 생산은 지방관부가 주관하여 해당지역의 沙器匠人戶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부과된 공납용 자기의 생산은 지방관부가 자기를 수취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방관부에 속한 특정한 지역의 자기소에 장인들을 入役시켜 국가가 정한 요역일수 내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때의 자기소는 운영주체가 지방관부인 貢納窯이다.

둘째, 지방관부가 해당지역의 한 곳 또는 한 곳 이상의 자기장인호(沙器匠人戶)에게 공납용 자기의 양을 할당하고 완제품을 거두방식으로 匠人戶에 속한 民窯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공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를 생산한다. 이 때 자기장인호는 지방관부로부터 부여받은 공납용 자기의 생산의무를 완수한 후에는 민수용의 자기를 생산하여 생업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생산한 가마(窯場)들은 모두 지방관부가 자기소로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가마들은 가마다 신설 및 폐요 시기가 다르고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지리지 편찬 시기와 맞물려 지리지에 자기소로 기재되기도 하고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공납을 위해 생산해야 하는 자기의 양, 형태 및 문양 등의 양식, 명문의 내용, 작업기간 및 생산이 완료된 자기의 납공(納貢)에 이르는 공납의 전 과정을 地方官(府)가 주관하였으므로 그 운영주체는 지방관부로 파악하였다.

\*주제어(key words) \_ 磁器所(jagiso; ceramic workshop), 貢納窯(gongnabyo; kilns producing ceramic wares for King's court), 貢納磁器(gongnap jagi; ceramic wares as tributes), 地方官府(local government offices), 沙器匠人戶(potter households), 『世宗實錄』地理志(Sejongsillok jiriji; Geographical Appendix to the Annals of King Sejong)

■ 투고일 2011년 2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1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1년 5월 13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 2. 단행본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_\_\_\_\_, 『韓國陶磁史』, 일지사, 1989.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시공아트, 2005.

\_\_\_\_\_,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姜萬吉, 『朝鮮時代 商工業史 研究』, 한길사, 1984.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_\_\_\_\_,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1995.

김종직 저·임정기 역, 『(국역)점필재집I』, 민족문화추진회, 1996.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 東國輿地勝覽을 中心으로』, 혜안, 2002.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 研究』, 일지사, 1990.

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 혜안, 2002.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1964.

### 3.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國立中央博物館, 『계룡산 도자기』, 2007.

國立中央博物館·호암미술관, 『鷄籠山 鶴峰里窯址 發掘調査略報』, 1992.

國立中央博物館, 『鷄籠山 鶴峰里 二次 發掘調査 略報』, 1993.

國立中央博物館, 『光州 忠孝洞窯址-粉靑沙器·白磁가마 퇴적층 조사』, 1992, 1993.

이화여자대학교·양구군, 『楊口 方山의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2001.

전북문화재연구원·(주)오케이, 『完州 花心里 遺蹟』, 2008.

機張郡·慶南文化財研究院, 『長安邑 一圓 陶窯址 精密地表調査』, 2007.

全南文化財研究院, 『谷城 龜城里 陶窯址』, 2005.

燕岐郡·忠南歷史文化院, 『燕岐 金沙陶窯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7.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公社, 『永同 沙夫里·老斤里 陶窯址』, 2003.

忠南燕岐郡 外, 『松亭里 陶窯址』, 199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外, 『蔚山 高旨坪遺蹟(Ⅲ)』, 2004.

#### 4. 논문

姜敬淑,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陶器所 연구』, 『美術史學研究』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_\_\_\_\_, 『世宗實錄 地理志 기록에 있는 磁器所 陶片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考古美術史論』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7.

\_\_\_\_\_,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研究』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姜制勳, 『朝鮮初期 徭役制에 대한 재검토-徭役의 種目區分과 役民規定을 중심으로』, 『歷史學報』145.

金東洙, 『世宗實錄 地理志의 研究 - 특히 産物·戶口·軍丁·墾田·姓氏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金英媛, 『세종연간의 도자에 관한 고찰』, 『美術資料』55, 국립중앙박물관, 1995.

\_\_\_\_\_, 『朝鮮時代 官窯體制的 變遷-磁器所·陶器所에서 分院官窯로』, 『美術資料』66, 국립중앙박물관, 2002.

김운정, 『高麗 末·朝鮮 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260, 한국미술사학회, 2008.

金鎮鳳,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研究』22, 1973.

朴敬子,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美術史學』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_\_\_\_\_, 『高麗 末·朝鮮 初 貢納用 磁器의 製作背景』, 『高麗陶器新論』, 학연문화사, 2009.

\_\_\_\_\_, 『공납용 분청사기의 통일된 양식과 제작배경』, 『美術史論壇』27, 韓國美術研究所, 2008.

\_\_\_\_\_, 『15세기 貢物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銘文의 지역별 특징』, 『湖西史學』제47집, 호서사학회, 2007.

\_\_\_\_\_, 『粉靑沙器 銘文 研究』, 『講座 美術史』2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朴道植,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박정민, 「麗末鮮初 楊口 方山가마와 관사명 공납백자」,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 방산자기박물관, 2007.  
 전승창,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15世紀 陶磁所 考察」,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1, 삼성문화재단, 1996.  
 尹用出,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제10집, 부산대학교사학과, 1986.  
 李惠玉,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33(1999).

## 5. 도록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국립청주박물관, 『김연호 기증문화재』, 200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東垣李洪根蒐集名品選-陶磁編』, 1997.  
 호림박물관, 『粉靑沙器名品展-自然으로의 回鄕-하늘·땅·물』, 2004.  
 湖巖美術館, 『粉靑沙器名品展』, 1993.  
 湖巖美術館, 『粉靑沙器名品展Ⅱ』, 2001.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優艷の色·質朴のかたち-李秉昌コレクション 韓國陶磁の美』, 大阪: 1999.  
 大阪東洋陶磁美術館, 『三島曆手-企劃展 朝鮮陶磁 シリーズ 15』, 大阪: 1990.  
 大阪東洋陶磁美術館, 『粉靑沙器-企劃展 朝鮮陶磁 シリーズ 15』, 大阪: 1996.  
 『世界陶磁全集 19 李朝』, 東京: 小學館, 1979.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전기에 司饗院沙器所인 官窯의 설치가 완료된 1469년 이전에 內用 및 國用的 磁器를 제작한 요업체제를 다루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운영재정의 稅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地理志를 편찬하였다. 이 때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貢物의 한 종류로 磁器가, 이를 생산하는 장소인 磁器所가 기재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국가운영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지리지의 편찬목적에 입각하여 이때 기재된 ‘磁器所’를 ‘국가운영에 사용되는 貢納用 磁器를 생산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貢物은 지방관부가 戶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므로, 공납용 자기의 생산은 지방관부가 해당지역의 沙器匠人戶에게 그 생산의무를 부과하였다.

지방관부가 공납용 자기를 수취하는 방식은 지방관부에 속한 특정한 가마(窯場)에 장인들을 입역시키는 방식과 한 곳 또는 한 곳 이상의 沙器匠人戶에 속한 가마(民窯)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들 가마는 모두 지방관부가 자기소로 파악하였으며, 국가운영에 사용되는 공적인 용도의 자기를 생산하는 貢納窯이다.

이러한 자기소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 운영주체는 貢納制의 체제 내에서 공납자기의 분정, 생산, 수취, 납공 등의 모든 과정을 地方官(府)가 관장하였으므로 지방관부로 파악하였다.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15th-Century Joseon Ceramics Workshops

Park Kyung-ja \*

This paper is a discussion of Joseon-period kilns system(*jagiso system*) that produced ceramic ware for the internal use at King's court and for the state use on official business, which were in operation prior to 1469 when the unified king's kilns were establish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Saohngwon(Bureau for Overseeing Ceramic Production).

Since the early years upon the founding of the dynasty, the Joseon court commissioned projects for compiling geographical treatises in order to use them as references for determining the tax base, essential for its revenue. Geographical works such as *Gyeongsang-do jiriji*(Geography of Gyeongsang-do) and *Sejong sillok jiriji*(Geographical Appendix to the Annals of King Sejong) were published at this time to list ceramic ware among the types of goods paid in tributes or tax-in-kind, and recorded *jagiso*(ceramic workshops) as sites of their production.

In this study, "*jagiso*" is defined as production sites for ceramic ware paid in tribute to the government, reflecting the goal for compilation of these geographical works; namely, to secure stable revenue for the royal government.

---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Since the local tributary tax was imposed to each census unit (it can be an extended family unit or a factory unit) each pottery workshop unit was required to produce a set amount of taxation ceramics imposed by their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re were two different ways of procuring porcelains for the King's government. One was assigning potters to specific kilns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other was having one or more private kilns to produce porcelains to be supplied to the government during a specified period of time. All of these kilns were identified as "*jagiso*" by local administrations, to produce porcelains for the King's government.

Since the entire process of producing the taxation ceramics was controlled by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cluding allocation, production, collection, and delivery, eventhough *jagisos* were owned either by local goverement administrations or privately, all of them could be regarded as official gongnabyo and their operator during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governmental ceramics was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s.